<h1>나 혼자만 레벨업-24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w6ab478d60a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24화</p>  
<p>유진호는 '정당'이란 단어를 유난히 강조했다.</p>  
<p>'확실히...'</p>  
<p>그게 가장 안전하게 마정석을 챙기는 방법이긴 했다.</p>  
<p>마정석들은 지금 주인을 잃은 상태였다.</p>  
<p>황동석이 아무리 욕심을 부렸어도 저승까지 마정석을 가져가지는 못했다.</p>  
<p>딱 한 사람, 유진호만이 마정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 그 유진호가 알아서 마정석을 바치겠단다.</p>  
<p>강제로 뺏는 거라면 사양하겠지만...</p>  
<p>'굴러 온 복을 걷어찰 필요는 없잖아?'</p>  
<p>자신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유진호는 벌써 죽었거나 인질로 끌려다니고 있었을 거다.</p>  
<p>그렇게 생각하면 정당한 대가라는 말도 꽤 일리가 있었다.</p>  
<p>진우의 표정이 풀어지는 것을 보고, 유진호는 추측이 맞았음을 확신했다.</p>  
<p>'역시 마정석들은 황동석 일행을 사냥해서 얻은 정당한 피의 대가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으시는 거야.'</p>  
<p>두 사람이 생각하는 '정당함'의 의미는 크게 어긋나 있었지만 당사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.</p>  
<p>"좋다."</p>  
<p>진우의 승낙에 유진호의 얼굴이 환해졌다.</p>  
<p>철저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진우에게 약간의 경외감마저 들기 시작한 유진호였다.</p>  
<p>그런데 진우의 얼굴이 다시 무표정하게 변했다.</p>  
<p>"하지만 널 어떻게 믿지?"</p>  
<p>진우의 머릿속에 처음 목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애초에 이익을 얻으려고 공포감을 조성했던 게 아니었다.</p>  
<p>귀찮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다.</p>  
<p>"제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 주신 형님을 어떻게 배신하겠습니까?"</p>  
<p>"약속한 건 무시하고 여기저기 떠들어 댈 수도 있잖아?"</p>  
<p>사실 떠들고 다녀도 크게 문제 될 건 없긴 했다.</p>  
<p>황동석 일행을 죽인 건 100퍼센트 정당방위니까.</p>  
<p>상대는 여덟 명에 모두 무장 상태.</p>  
<p>강력한 마법으로 선공까지 가해 왔다.</p>  
<p>헌터들의 등장으로 법이 달라진 지금, 이 정도면 확실히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.</p>  
<p>그래도 되도록 시끄러운 일 없이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었다.</p>  
<p>그러기 위해서는 유진호의 협조가 필요했다.</p>  
<p>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는 해도 효과는 이게 확실했다.</p>  
<p>"응?"</p>  
<p>진우가 대답을 요구하듯 지그시 바라보았다.</p>  
<p>유진호가 비장한 얼굴을 했다.</p>  
<p>"그렇게 비겁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. 특히 목숨을 구해 준 은인께는 더더욱요."</p>  
<p>'잠깐만...'</p>  
<p>저 눈빛,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싶었는데 아까 황동석 일행의 공범 제안을 거절할 때 유진호가 보여 줬던 것과 같았다.</p>  
<p>'이 녀석... 진심이구나.'</p>  
<p>기브 앤 테이크.</p>  
<p>유진호는 목숨의 걸린 기로에서 진우를 택했다.</p>  
<p>진우를 믿고 여덟 명의 헌터들과 맞서려고 했다.</p>  
<p>그래서 진우도 유진호를 한번 믿어주기로 했다.</p>  
<p>물론 지금 바로는 좀 그렇고... 약간의 경각심을 심어 준 뒤에.</p>  
<p>진우는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던 황동석의 방패를 집어 들었다.</p>  
<p>"황동석한테 맞은 뒤통수가 아직도 얼얼한데."</p>  
<p>방패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진우가 동굴 벽을 향해 있는 힘껏 던졌다.</p>  
<p>쾅!</p>  
<p>방패의 절반 이상이 벽 깊숙이 박혔다.</p>  
<p>유진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"우리 동생까지 날 실망시키지 않겠지?"</p>  
<p>"무, 물론입니다, 형님."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또다시 던전이 세차게 흔들렸다.</p>  
<p>-쿠구구구구구구구궁.</p>  
<p>이제 시간이 없었다.</p>  
<p>어차피 처음부터 유진호를 해칠 생각이 없었던 진우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렸다.</p>  
<p>진우가 유진호에게 명령했다.</p>  
<p>"마정석 전부 챙겨. 던전에서 나간다."</p>  
<p>"감사합니다, 형님!"</p>  
<p>유진호가 일어나 기역 자로 반듯하게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유진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.</p>  
<p>진우는 유진호가 가방을 챙기러 간 사이 황동석의 주머니를 뒤졌다.</p>  
<p>'나도 받을 건 받아야지.'</p>  
<p>오늘 받기로 한 일당 2백.</p>  
<p>한 푼도 놓칠 수 없었다.</p>  
<p>황동석의 지갑 안에는 5만 원짜리가 수십 장 들어 있었다.</p>  
<p>세어 보니 모두 45장.</p>  
<p>2백만 원이 조금 넘었다.</p>  
<p>끝나는 즉시 현찰로 준다더니 미리 준비해 뒀던 모양이었다. 매번 꼬리 자르기를 쓸 수는 없으니 말이다.</p>  
<p>"일당은 잘 받아 간다."</p>  
<p>진우는 듣는 사람 없는 인사를 하고서 먼저 자리를 떠났다.</p>  
<p>뒤늦게 마정석이 담긴 가방을 챙겨 온 유진호가 이미 사라진 진우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.</p>  
<p>"형님?"</p>  
<p>주변엔 진우에게 당한 헌터들 시체들 뿐이었다.</p>  
<p>"히익!"</p>  
<p>얼굴이 파랗게 질린 유진호가 혹시나 놓칠세라 헐레벌떡 진우의 뒤를 쫓아갔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현장에 협회 조사과 직원이 도착했다.</p>  
<p>레이드 중 사망자가 생겼을 때의 절차는 간단했다.</p>  
<p>협회에 상황을 알리고 조사를 받기만 하면 끝난다.</p>  
<p>이번 조사원은 깐깐하게 생긴 아줌마였다.</p>  
<p>"두 분은 성함이?"</p>  
<p>"성진우."</p>  
<p>"저는 유진호입니다."</p>  
<p>헌터가 던전에서 죽는 사고야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다.</p>  
<p>그냥 기록으로만 남겨 두는 거다.</p>  
<p>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말이다.</p>  
<p>"...그런데 C급 헌터분들이 전멸하고 D급 한 분, E급 한 분만 빠져 나오셨네요?"</p>  
<p>조사원이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.</p>  
<p>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졌다.</p>  
<p>'보통 레이드의 희생자는 팀에서 가장 약한 헌터인 경우가 대부분인데...'</p>  
<p>두 사람을 꼼꼼히 살펴보던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높였다.</p>  
<p>"어머나!"</p>  
<p>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.</p>  
<p>"이거 마야 사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장검 '칼리온' 아닌가요? 어멋, 이건 장인 그레도스 씨가 제작한 로열 시리즈 방패네요?"</p>  
<p>유진호의 얼굴이 환해졌다.</p>  
<p>"무기를 좀 아시는군요!"</p>  
<p>"에이, 알긴요. 그저 신상 목록이나 훑어보는 수준이죠. 호호호호홋!"</p>  
<p>장검의 가격은 7억. 방패의 가격은 5억</p>  
<p>억대를 넘는 마정석과 값비싼 소재들을 이용해 만든 고가의 무구들로, D급 헌터를 C급 이상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강력한 장비들이었다.</p>  
<p>그녀의 머릿속에서 던전 안 상황이 자동적으로 그려졌다.</p>  
<p>'이 정도 장비들이라면...'</p>  
<p>C급 헌터들이 전멸하는 상황에서 D급 헌터가 혼자 보스를 잡는 것도 가능할 듯했다.</p>  
<p>'E급 헌터는 어디 구석에서 숨어 있다가 목숨을 건졌을 테고.'</p>  
<p>사실은 정확히 그 반대였지만.</p>  
<p>어쨌든 그녀는 결론을 내렸다.</p>  
<p>이런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 고작 마정석 몇 개 때문에 동료들을 배신했을 가능성은 희박했다.</p>  
<p>거기다 E급 헌터 혼자서 C급 헌터 여럿을 어찌할 순 없었을 테니 황동석 외 일곱 명의 죽음은 사고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이다.</p>  
<p>"알겠습니다."</p>  
<p>조사원은 만족스런 표정으로 기록지를 덮었다.</p>  
<p>"조사는 이걸로 끝났으니 이제 가셔도 됩니다.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"</p>  
<p>"수고하셨습니다."</p>  
<p>진우가 두 사람을 대표해 인사했다.</p>  
<p>조사원이 탄 승용차가 왔을 때처럼 빠르게 현장을 떠나갔다.</p>  
<p>"형님도 수고하셨습니다."</p>  
<p>유진호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.</p>  
<p>게이트를 나오고 나서도 그 깍듯한 태도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.</p>  
<p>무섭기는 많이 무서웠던 모양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.</p>  
<p>"너도 수고했다."</p>  
<p>"제가 뭐 한 게 있나요. 형님이 다 하셨지. 여기, 형님 마정석입니다."</p>  
<p>진우는 유진호가 공손하게 두 손으로 건네는 가방을 받아 들었다.</p>  
<p>가방 안은 마정석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.</p>  
<p>C급 게이트에서 나오는 마정석의 최고가는 천만 원.</p>  
<p>아무리 작은 것도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.</p>  
<p>진우는 눈대중으로 마정석의 숫자를 세다가 속으로 탄성을 내질렀다.</p>  
<p>'이게 다 얼마야...?'</p>  
<p>자꾸만 웃음이 새어 나오려는 걸 참느라 애를 써야 했다.</p>  
<p>그런데 갑자기 가방 안에 물방울들이 하나둘 떨어졌다.</p>  
<p>톡.</p>  
<p>톡.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오후부터 차츰 흐려지던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이었다.</p>  
<p>'우산... 챙겨 보내기 잘했네.'</p>  
<p>진우는 문득 떠오른 동생 생각에 옅게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밤이 깊어 가는 시간.</p>  
<p>진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상태창을 불러냈다.</p>  
<p>"스탯!"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53 체력: 30 민첩: 38 지능: 30 감각: 32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10)</p>  
<p>긴급 퀘스트 보상으로 받은 10포인트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.</p>  
<p>이걸 쓰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다.</p>  
<p>일일 퀘로 치면 3일하고도 1포인트를 더 모아야 하고, 레벨로 쳐도 2업을 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포인트였다.</p>  
<p>'최우선은 민첩이다. 그다음은 감각.'</p>  
<p>민첩에 7포인트를 주고 나머지 3포인트를 감각에 투자했다.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53 체력: 30 민첩: 45 지능: 30 감각: 35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"오케이."</p>  
<p>능력치가 고르게 상승했다.</p>  
<p>민첩은 근력을 많이 따라잡았고, 감각도 어느새 35포인트나 됐다.</p>  
<p>민첩이 근력과 비슷해지면 이제 체력에 포인트를 투자할 생각이었다.</p>  
<p>아직 쓰임새를 모르는 지능 말고는 모든 스탯을 골고루 올리고 싶었다.</p>  
<p>"오늘 성과를 한 번 볼까?"</p>  
<p>이름: 성진우</p>  
<p>레벨: 21</p>  
<p>직업: 없음</p>  
<p>칭호: 늑대학살자</p>  
<p>HP: 2600</p>  
<p>MP: 390</p>  
<p>피로도: 0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53 체력: 30 민첩: 45 지능: 30 감각: 35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[스킬]</p>  
<p>패시브 스킬: (알 수 없음) Lv.MAX, 근성 Lv.1</p>  
<p>액티브 스킬: 질주 Lv.1, 살기 Lv.1</p>  
<p>3계단 뛰어오른 레벨과 새로 얻은 스킬 '살기'가 눈에 들어왔다. 10포인트가 더해진 덕분에 스탯도 대폭 올랐다.</p>  
<p>이 정도만 해도 괄목할 만한 성과인데, 오늘 얻은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.</p>  
<p>'일당으로 받은 2백만 원에.'</p>  
<p>가방 가득 들어찬 마정석까지.</p>  
<p>진우는 마정석의 개수를 세었다.</p>  
<p>'거미에서 나온 마정석이 11개, 황동석 팀의 마정석이 38개.'</p>  
<p>다 합치면 49개!</p>  
<p>개당 5백만 받아도 2억이 넘는 돈이 생기는 것이다.</p>  
<p>"하루 사냥으로 2억이라니."</p>  
<p>10명, 아니 아홉 명이 나눠 먹어야 할 돈을 혼자 챙기니 액수가 엄청나게 커졌다.</p>  
<p>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이 넝쿨째 굴러들어 온 셈이었다.</p>  
<p>'이제 이걸 팔기만 하면 된다.'</p>  
<p>마정석을 파는 건 어렵지 않았다.</p>  
<p>사려는 이들이 워낙 많아서 매물로 내놓기만 하면 금방 사라지니까.</p>  
<p>문제는 어디에 파느냐 하는 것이다.</p>  
<p>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많았고, 길드나 기업 같은 단체가 사들이기도 했다.</p>  
<p>이번 경우에는 양이 많아서 개인 거래나 온라인 거래보다는 전문 업체에 직접 가서 파는 게 좋을 듯싶었다.</p>  
<p>'그냥 상점에 팔 수는 없나?'</p>  
<p>잡템들처럼 상점에서 마정석을 제값에 사 주면 편할 텐데.</p>  
<p>진우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마정석이 담긴 가방을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.</p>  
<p>그러다 문득 오늘의 성과 하나가 더 떠올랐다.</p>  
<p>'이제부터 상점의 구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지?'</p>  
<p>진우는 곧바로 상점을 불러왔다.</p>  
<p>많은 돈은 아니지만 합정역 인던을 돌 때 모아 두었던 골드가 아직 창고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.</p>  
<p>"구매."</p>  
<p>띠링.</p>  
<p>익숙한 전자음과 함께 구매 가능한 아이템 목록이 끝도 없이 뜨기 시작했다.</p>  
<p>싸구려 포션과 잡다한 장신구에서부터 값비싼 방어구와 화려한 무기들까지.</p>  
<p>많은 물건이 골드로 판매되고 있었다.</p>  
<p>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쌀수록 옵션이 좋았다.</p>  
<p>최상위 아이템 중에는 100억 골드까지 하는 것도 있었다.</p>  
<p>"워... 100억이라."</p>  
<p>현재 보유 골드는 고작 11억 2천.</p>  
<p>쓸 만한 물건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.</p>  
<p>시간은 충분하니까.</p>  
<p>'골드만 모으면 이걸 다 살 수 있단 말이지?'</p>  
<p>진우는 콧노래를 부르며 고가의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둘러보았다.</p>  
<p>인던을 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.</p>  
<p>벌써부터 내일의 퀘스트와 보상으로 받을 랜덤 박스가 기다려지기 시작했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